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2년 12월

선교편지 제 50 호

Maligayang Pasko
Merry Christmas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매주 토요일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 진행 되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2 구절의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여, 최종 30 구절의 성경을 누적해서 모두 암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많은 관심을 받으며 13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지만, 저희 부부가 그 많은 인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 4학년 졸업 예정자 위주로 약 60여명을 재선발해서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반까지 오는 중에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약 40여명의 학생들만 남아서 열심히 따라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의 관련 주제도 함께 외우도록 해서, 실제로 성경 구절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성경 암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으로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인색하지 않게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벌써 풍성하게 이 학생들에게 임했음이 보이고, 또한 이들의 삶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소그룹 성경 암송 점검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위해서 다른 몇몇 가지의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찬양과 경배, 워십댄스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음악과 춤에 대해서는 참으로 월등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은 찬양을 선정을 해서 들려 주기만 해도 더 아름다운 찬양과 워십 댄스로 변화가 됩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이 땅끝에도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한국 드라마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 정도는 다 쓸 줄 아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기다리는 간식도 나누고, 특별한 일을 기념할 때는 음식을 직접 해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엡 4:4)

무더위 가운데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고 작은 태풍이 이곳을 지나감에 따라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왓지모를 기대와 설레임으로 모두들 부풀어 있을 때이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니 주기 보다는 받는데에 더 익숙한 저희 학생들이었지만, 이번 성탄절 만큼은 더 어려운 주변 이웃을 돌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정책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킨 소위 빈민촌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일반 주민들과 빈민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저희 학생들이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빈민촌에 거주하는 저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도 헌 옷을 입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나마 입지 않는 헌 옷을 빈민촌에 전달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빈민촌에 거주하는 이웃을 위해 들려줄 성탄절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출한 음식이지만, 같이 나눌수 있는 메뉴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저희 공동체가 '이웃'의 의미와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30-32)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 (Gallup)이 1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표현 정도를 측정해서 지난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계에서 희로애락 (喜怒哀樂)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국민은 다름이 아닌 '필리핀' 사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감정 표현이 적은 나라는 싱가포르이고, 한국도 151개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나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 의하면 감정표현을 잘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서, 필리핀의 행복도는 103위라고 합니다. 현지인들과 가까이 사는 저에게 많은 동감을 주는 조사 결과 입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 할 수는 없지만, 현지 TV 에서 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면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과장되게 보일 정도의 웃고, 우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특별한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인터뷰하는 장면에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좋거나, 싫은 감정 표현을 쉽게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사는 이웃을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이웃은 아랑곳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저녁 고성을 지르듯이 동네가 떠나 가도록 웃는 웃음 소리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도 웃음과 눈물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와 하며, 흐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방인인 저희로서는 감정을 일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이들의 감정표현이 매우 섬세하고도 다양한 것을 쉽게 발견 합니다. 굴러가는 나뭇잎만 보아도 웃고, 우는 나이 이기도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할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즐겁게 웃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는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마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크리스티'는 지난 2년여 가까이 저희와 함께하며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지난 7월 예일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사역 현장 아주 가까이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고, 평소에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착실하고도 명랑한 15살의 꿈 많은 소녀입니다. 그런데 매주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던 '크리스티'가 지난 8월부터 거의 한달여간 출석을 하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의 모든 현지인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충치'로 인해서, '크리스티'는 저희 모임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 수업에도 제대로 출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충치가 얼마나 심하고 괴로웠는지 붓기로 인하여 얼굴 모양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영구치인 앞니 두개'를 빼 내고야 말았습니다. 꿈많은 15살의 여학생에게서 영구치인 두 개의 앞니를 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런지..... 임플란트등의 추가 치료는 기대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니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토요 성경 암송 학교

제대로 모양을 갖춘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이곳에서, '크리스티'는 창피함으로 인해 수건으로 얼굴의 반을 가리운 채 저희 토요 학교에 다시 출석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크리스티'의 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해서 가장 친한 친구외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 밝고 싱싱한 꽃이 한 순간에 시들어 버린 것을 너무도 실감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 성경을 암송 할 때면, 친구들 앞에 나와 서서 큰 소리로 암송을 하게 했는데, '크리스티'는 예외입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저희에게 별도로 점검을 받습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주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해도, '크리스티'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을 이미 체념해 버린 사람처럼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움만 느껴질 뿐입니다.

소위 신앙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한 아이가 앞니 두개로 인하여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 오르는 얼굴이 슬픔에 젖어있는 '크리스티'의 모습일 정도로 큰 부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크리스티'의 앞니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일 또한 기도하며,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야 하는 '크리스티'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앞니'를 해 주어야 하는 섬김이 저희에게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섬김은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압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 6:27)

그러나 '크리스티'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가지 일들을 먼저 준비하며 고민해야 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가 위치한 '디고스'에서는 단순히 충치를 뽑는 치료가 아닌 새로운 치아를 해 넣는 치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크리스티'의 치료를 위해서 거의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치과를 수소문 해서 여러번 방문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새로운 치아를 해 넣어야 하는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규모있게 선교비를 사용해야 하는 저희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치과 의사를 알게 되어서, 저희의 형편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침내 '크리스티'에게 치료 계획을 이야기 해 주고 부모님과 함께 치과 방문을 위한 허락을 받아 오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크리스티'의 반응을 어떻게 글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람, 기쁨, 감격, 의심, 놀람, 기쁨, 감격, 감사, 감격, 감사.....

2주간에 걸친 쉽지않은 통원 치료 끝에, 마침내 슬픔에 젖어 있던 '크리스티'가 밝은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치아를 모두 드러낸 활짝핀 웃음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남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도 모든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일에 참견이 많아지고, 갑자기 바빠진 '크리스티'의 모습이 재미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시들어 있던 한 여린 학생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중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무뚝뚝한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정 표현이 가장 풍부하고도 섬세한 필리핀 사람들로 인해 서서히 녹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가족과 함께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2)

기도 요청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 학원 선교를 위하여
- SPAMAST 대학 선교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